논어 17편 양화 10장 · 원문·풀이

# 子謂伯魚曰：「女爲周南召南矣乎？人而不爲周南召南，其猶正牆面而立也與！」

독음 · 자위백어왈 여위주남소남의호 인이불위주남소남 기유정장면이립야여

쉬운 풀이(요약) · 주남과 소남을 배우지 않으면 담벼락을 마주 보고 서 있는 것처럼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어렵다고 했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子 아들 자 / 謂 고할 위 위 / 伯 맏 백 백 / 魚 물고기 어 어

曰 가로 왈 / 女 계집 녀 여 / 爲 할 위 / 周 두루 주 주

南 남녘 남 남 / 召 부를 소 소 / 矣 어조사 의 / 乎 어조사 호

人 사람 인 / 而 말이을 이 / 不 아닐 불 / 其 그 기

猶 어미 원숭이 유 유 / 正 바를 정 정 / 牆 담 장 장 / 面 낯 면 면

立 설 립 립 / 也 어조사 야 / 與 너울너울할 여 여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